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부지(이천동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개최

□ 개최 계획

ㅇ 일　　시 : 2010. 11. 19.(금). 16시.
ㅇ 장　　소 :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부지(이천동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현장
ㅇ 참석대상 :
　　지도위원 : 김세기(대구한의대학교 교수/문화재위원)
　　김권구(계명대학교 교수/문화재위원)
　　조사기관 : 이희준(영남문화재연구원장), 박승규(영남문화재연구부원장) 外
ㅇ 회의안건 : 조사내용에 대한 검토
　　조사대상지의 향후 처리방안 등

□ 발굴조사개요

ㅇ 발굴사유 : 이번 조사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일원(이천동지석묘 주변)에 추진하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형질변경에 앞선 발굴조사이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부지에 대한 지표조사결과, 이천동 일원의 발굴조사 대상지는 대구문화유적분포지도의 대구신천변유적에 포함되며, 대봉네거리 남쪽에 위치한 대구 이천동 지석묘①에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어 유적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량 굴착 범위에 대해서 분포확인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영남문화재연구원, 2008, 『대구 도시철도3호선 건설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청의 보존대책 통보(발굴조사과-7782, 2008. 06.26)에 따라 남구 이천동에 위치한 분포확인조사를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의뢰로 추진하였다. 이에 대한 지도위원회를 2010년 7월 26일에 개최하였으며, 지도위원회 회의 결과 청동기시대 석관묘가 확인된 4Trench와 근대 우물이 확인된 5Trench가 위치한 교각(7m×7m) 2개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를 하여야한다는 의견의 제시되었다. 이후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부지(이천동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98㎡)에 대한 허가(문화재청 발굴제도과-11625 / 2010. 8. 17)를 득하여 2010년 11월 16일부터 발굴조사 진행 중인 상태이다.

ㅇ 신 청 인 :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ㅇ 조 사 일 : 2010. 11. 16 ~ 2010. 12. 8
ㅇ 조사기관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ㅇ 조사범위 : 98㎡
ㅇ 조사결과
- 유구확인 : 청동기시대 석관묘 3기, 근·현대 우물 1기가 확인 되었다.
- 출토유물 : 유구 내에서 청동기시대 석촉 및 근·현대 자기,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 발굴조사성과

ㅇ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석관묘 3기와 근·현대 우물 1기가 확인되었다.
ㅇ 금번조사를 통해 확인된 청동기시대 석관묘는 남쪽으로 인접하여 위치한 대구 이천동지석묘①과 관련된 청동기시대 무덤으로 보여지며, 신천변에 위치한 청동기시대 무덤들의 일면을 연구하는데 있어 좋은 자료로 판단된다.

□ 기타 참고사항

ㅇ 연락처 : 책임조사원 한도식(010-3511-2969)/ 조사원 권헌윤(010-9357-4647)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부지(이천동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장소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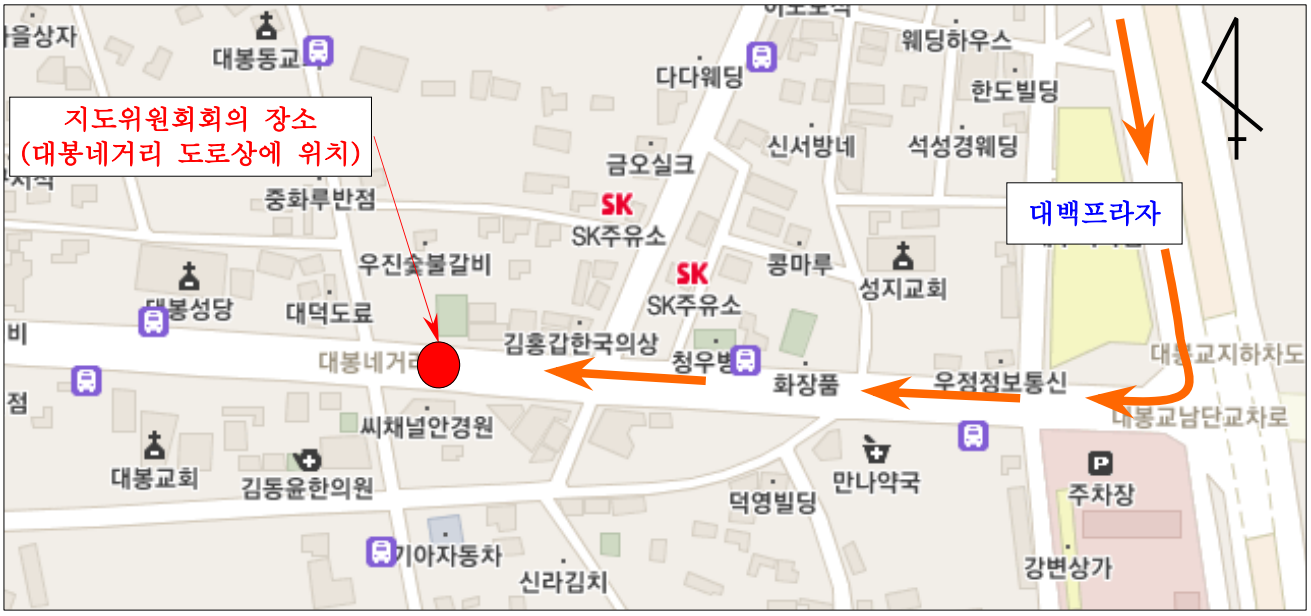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 중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부지(이천동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에 대한 지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0년 11월 19일 금요일 16시 00분
▶ 장 소 :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부지(이천동 구간) 발굴조사 현장
<대구 남구 이천동 209-2번지 일원(대봉네거리)>
▶ 유적내용 : 청동기시대 석관묘, 근·현대 우물
▶ 연 락 처 : 한 도 식 ☎ 010-3511-2969, 권 헌 윤 ☎ 010-9357-4647

※ 현장약도 1

현장약도 2



현장약도 3

※ 대봉교 → 건들바위네거리(명덕네거리) 방향으로 500m 직진 → 대봉네거리**(발굴조사 현장은 대봉네거리 도로상의 펜스 설치한 내부에 위치)**

※ 주차 : 주변에 주차를 할 곳이 없어 발굴조사 대상지 남서쪽의 **캠프헨리 북편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2010. 11. 18.

嶺南文化財硏究院